

## 유엔 전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중대한 시점 마주

- 특별보고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국가 방문을 허용토록 촉구
- 인권 상황 여전히 "매우 심각"
- 정치범 수용소 제도에 매우 우려

제네바 (2019년 1월 11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이하 "특별보고관")은 작년 한반도 긴장 완화를 가져온 전환점을 돌아볼 때 2019년은 "평화와 비핵화 뿐 아니라 인권에 있어서도 결정적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위임권한 수행에 협력하고 국가 방문을 허용하여 "국민과 당국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도록 촉구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현재까지 해당 위임권한과 협력을 거부했다.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서울에 방문하여 5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후, 작년 한 해 동안 긍정적인 전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여전히 "상당히 심각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별보고관은 일반 시민의 삶을 언급하며 국민 대다수가 "뒤쳐져 있다"고 언급했다.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자가 신년사에서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제일가는 중대사"라 언급했고, 또한 당국이 "인민의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주목했다.

특별보고관은 [모두발언문](#)에서 "이는 일반 국민의 경제 및 사회적 어려움을 인식한 것으로 보며, 이러한 인식이 곧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는 유의미한 첫 걸음"이라 말했다.

특별보고관은 국제공동체에 촉구하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주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여러 관계당사자에 지원을 이어나가도록 했다. "특히 인도적 협력은 정치와 무관하게 중립성과 독립성의 원칙을 전적으로 존중하여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특별보고관은 제재 조치 이행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살필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재차 요청했다.

### 정치범 수용소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정치범 수용소 제도가 여전히 존재함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실질적으로 느끼며 이러한 두려움이 주민의 인식에 뿌리깊게 박혀 있다. 그 자체가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이라 말했다.

"일반 시민을 감시하고 엄격하게 통제할뿐 아니라 출국을 금지하는 등 기본적인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제도적으로 주민을 통제하는 주요 방법이다. '나라 전체가 감옥'이라고 말한 이도 있었다."

특별보고관은 인권 분야 대화와 신뢰 구축 절차를 시작하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촉구했다. “우리는 중대한 시점을 마주하고 있다. 올 한 해는 서로 적국 또는 적대국이라 여기던 당사자들이 평화와 비핵화 의제를 논의하여 하루빨리 진전이 이뤄지길 우리 모두가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 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 인권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끝

토마스 오헤나 퀸타나 (아르헨티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2016 년 유엔 인권이사회 임명을 받았다. 인권 분야에서 20 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변호사로 미주인권위원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 아동 납치 문제를 다룬 비정부기구 마요 광장의 어머니들 (Abuelas de Plaza de Mayo) 대표로도 활동했다. 또한 기업형사책임 견도 다룬다. 과거 볼리비아 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 프로그램을 총괄한 바 있으며, 2008 년부터 2014 년까지 미얀마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직을 역임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제도](#)로,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 제도 하에서 가장 많은 독립전문가가 참여한다. 특별절차는 특정국가 인권 또는 전세계에 적용하는 특정 인권 주제를 다루기 위해 인권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특별절차 전문가는 유엔 직원 신분이 아니고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여타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개인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유엔 인권 국가별 웹페이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추가 정보 및 언론사 영어 문의는 Olga Nakajo ( +41 76 691 10 99 / [onakajo@ohchr.org](mailto:onakajo@ohchr.org)), 한국어 문의는 송유미 (+82 2 725 3524 / [ysong@ohchr.org](mailto:ysong@ohchr.org))로 해주십시오.

기타 유엔 위임권한 관련 언론사 문의는 아래 언론 부서(Media Unit) 담당자로 문의해 주십시오.